

대구지역 비공식부문 취업여성의 가족생활과 일에 대한 연구

- 파출부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mily Life and the Work of Informal Sector Female workers in Taegu
-Centered on the Visiting Part-time Workers-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대학원생 : 현 정 혜

계명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박 혜 인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Student Hyun Jung Hye

Dep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

Associate Prof. Park Hye In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결과

IV. 연구결과 분석 및 고찰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valuate the living condition and the reality of visiting part-time workers through the survey. On the matter of living condition, the most difficult problem is financial problem followed by residential problem. On the matter of female's household labor, there was a considerabl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husband's age and academic background, and family monthly income. On the question of family relationship, it was found that there was rare communication between children and father because father was too rigid to talk with. In the case of mother and children, they could not find time to talk with each other.

In the group of the old aged, they work to make their living. On the other hand, in the group of younger generations and the higher educated, they replied that they should work whatever the work is. It was found that they were subjected to their work because of their financial situation and that they were under the double yoke of family and work because there were no legal protection and organizational devices.

I. 문제의 제기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수출지향적 노동집약산업에 기초를 두었으며 이러한 수출주도형 공업화의 특수성에 따라 수출산업의 급속한 전개는 농촌부분에서 대량의 노동력을 유출시켜 노동계급의 급속한 성장과 도시비공식 부문중사의 꾸준한 증가를 가져왔다(이미영, 1986). 특히 1980년대 한국노동시장의 구조는 3차 서비스 부문과 비공식부문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변화추세는 연령, 혼인상태등의 조건으로 인해 공식 부문에서 고용기피되는 기혼여성들이 비공식부문으로 흡수되는 비율을 증가시켰다(박정문, 1987). 이렇게 증대되는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 참가부문을 보면 대체로 저임금의 단순노동과 비조직적, 비공식적부문의 취업에 편중되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 경제구조안에 유기적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다(조형, 1985). 즉 직업안정이 보장되고 수입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부여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여성에게는 별로 부여되지 않으며, 여성의 노동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노동력이 공식 부문의 고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인 것이다. 더구나 도시 비공식부문에 편입된 기혼여성들은 저학력, 저기술에 의한 노동으로 일터의 직생활과 가정내의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갖고있다. 여성이 임노동에 참가할때 이러한 제약점들이 그녀들의 노동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대다수 기혼여성들의 노동생활의 현실이라 볼 수 있다(홍승아, 1987).

오늘날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환경의 근대화화 근로의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용구조의 불안정과 여성을 차별하는 고용구조는 별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연구가 생산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주로 생산직, 사무직, 판매직 등의 일터연구에 국한되었고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비공식부문 여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비공식부문 중 본 논문이 조사하고자 하는 파출부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단 한편(박정문, 1987)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취업여성 중에서 특히 도시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대구지역의 파출부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가족생활과 일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실태분석에서 규명한 사실들을 기초로하여 이들이 취업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가정생활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며 또는 파출부들이 긴진한 직업인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비공식부문 취업여성 가정의 주가 실태와 수입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비공식부문 취업여성의 가사노동 시간 및 남편의 역할분담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비공식부문 취업여성 가정의 부모-사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비공식부문 취업여성의 부부간의 갈등 및 해소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비공식부문 취업여성의 일의 실태 및 취업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사회의 경제구조와 여성노동

자본주의적 생산의 지속적인 발전은 여성을 생산 현장에 끌어들이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자본주의 나라에서 여성들은 활발하게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이러한 변화는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혼여성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의 취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하에서 빈부격차의 확대와 늘어만 가는 기본적인 생계필수품의 구입, 막대한 교육비와 세금의 지출이라는 현실속에서 노동자가족은 물론 중산층에서도 경제적 필요에

의한 여성취업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노동력의 여성화'라고 할 정도까지 여성들이 생산노동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이와같은 세계추세에서 한국사회의 자본주의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저임금을 기초로 한 수출지향적 산업화 과정에서 양질의 저렴한 여성노동력의 역할과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었다(이효재, 1986). 즉 한국사회의 여성노동 참여의 구조적 성격은 차별적인 고용과 저임금에 기반한 것으로 고도산업화 단계에서 이 구조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저임금 노동자로서의 취업여성들은 한 가족을 위한 역할을 사회적 보상없이 희생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직업의 안정, 의료보험, 탁아시설의 모성보호조치, 산업재해 등 정책적 배려에서 제외되고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비공식부문의 경우는 임시노동자들로 분산되어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조은, 1984).

2. 도시비공식부문론

Hart가 1971년 발표한 Ghana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비공식부문의 개념은 '후진국의 실업 내지 잠재실업, 산업예비군이 종사하는 일련의 소득활동이며 소규모의 유통, 서비스 활동은 물론이고 1, 2, 3차 산업의 모든 부문에서 행하여지는 합법적 비합법적 소득활동의 일부까지 포함하였다'(조형, 1982). 또한 Mazundar는 비공식부문의 기준은 사회적 보호의 결핍이라고 했다. 특히 Hart의 '비공식 부문'이라는 개념은 도시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설명하는 틀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 이유로서 Bromley는 경제, 정치적 지배층의 현상유지를 위한 안정육구와 하층세력으로부터 오는 소득과 부의 재분배 압력간의 타협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재열, 1987).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경제안에 형성되는 비공식부문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제3세계 도시경제구조의 특수성을 전제로 하여 비공식부문의 위치 및 기능에 집중된다. 즉 도시비공식부문은 기업조직을 구성 경영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자원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력이 공식부문에 더 이상 직업을

얻을 수 없게 되어 불안정하고 비지속적인 고용조직에서 저임으로 고용되어 노동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경제활동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비공식부문 노동의 특성은 첫째, 임시적이고 유동적인 고용구조를 가지며 둘째, 저임금 노동이며 셋째, 사회적 보호가 결핍되어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노동이며 넷째,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으므로 진입이 용이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박정문, 1987).

한국의 도시비공식부문은 일차적으로 자본축적 형태 및 경제성장의 구조와 관련된 노동시장내부구조로 보고있다(조형, 1985b). 1960년대 이래 한국은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 정책의 추진 아래 외연적 성장, 수출산업육성, 불균형성장 등의 전략을 주축으로 하는 면밀한 계획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주도한 수출위주의 산업화와 대재벌육성은 노동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종속적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제도순을 드러내게 되었다. 즉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분절화하고 양 부문의 노동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결국 대기업내로 흡수된 노동은 폐쇄적인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였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산업화과정에서 형성된 경제이중구조와 직결되어 나타났으며 거기에 따라 기업들의 고용방침의 기저 원칙은 내부노동 시장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노동임금을 최저화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국가주도의 자본제적 산업화과정에서 한국의 도시비공식부문은 브뚱부르조아의 임노동화라는 질적변형을 경험하면서 전체 경제구조 안에 유기적으로 통합된 모습으로 유지되어 가고 있다(조형, 1985a).

3. 취업여성의 가족생활

산업화된 오늘날의 한국사회에 있어서 가정은 그 기능은 물론이고 가족의 사회적 지위, 경제상태, 가족형태, 가족수, 직업, 가족원의 연령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가정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다. 더우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되면서 부부간에는 점차 경제적 협력과 가족역할의 이중역할로 말미암아 가족관계에 내적, 외적인 여러가지 갈등을 초래하게 되

었다 그리하여 부부간의 역할수행이나 결혼생활의 만족 및 자녀양육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졌으며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을 병행해야하는 상황이 취업여성의 갈등을 높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이호균, 1987 ; 이성희, 1989).

특히 남편의 임금으로 실제 생계비의 70%도 채우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정서적 지지역할을 수행해주기 어려우며 자녀에 대한 물질적, 애정적 배려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된다(한국산업사회연구원, 1990). 그러므로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더 요구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가정의 기능은 물론 가족구성원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직업은 가정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박미균, 1985).

따라서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족과 취업여성이 겪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여성의 활동영역이 가정 밖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역할변화 문제로서 여성의 역할수행에 대한 전통적 기대의 지속이 취업주부의 역할을 과중하게 하여 결혼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있다(이성희 1989).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주부자신에게는 심리적 갈등을 주고 부부관계나 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가족의 크기가 작아지고 가족의 여러기능이 축소되어가는 현대 가족에서는 부인의 취업이 반드시 역기능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이호균, 1987) 견해도 있다.

이호재(1977)는 주위 사람들의 여성취업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여성 자신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Nye(1952)는 여성의 취업이 가족생활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민주적 결정에 기여하고, 여성의 성취감을 높이며 직업을 통한 사회적 접촉에서의 즐거움이 취업에서 파생되는 갈등을 보상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호재(1983)는 여성의 취업에서 부부가 대내외적 역할을 상화보완한다면 공동의 관심을 갖게 되어 현대 가족의 역할분리에서 오는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이 가족생활내에서 부정적인 측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

라 더러는 가족의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고 하였다.

4. 일로서의 가사노동의 성격

가정내의 일상생활에는 가사노동이라는 활동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관습적으로 수행하고 있기때문에 그 중요성이나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흔히 가사노동을 통한 가족의 생산적 기능을 간과하게 된다(손덕수, 1986 ; 문숙재, 1988).

1920년 무렵부터 가사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Margaret Reid가 최초로 가사노동에 가정생산이라는 개념을 도입 정의하고 가정내에서 수행되는 일이 생산적인 노동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가사노동은 생산적인 노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가사노동은 직업노동과는 대조적으로 경제적 보상이 적고 고립되어 있으며 주부가 수행하는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데서 비롯된다(문숙재, 1990). 그러나 이러한 인식하에서도 가사노동을 비생산적인 노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사노동이 그 자체로서 상품을 생산하거나 잉여가치를 창출해 내지 못하므로 소비노동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여성은 결혼과 함께 관습적으로 가정생산의 임무가 주어지며 일반적으로 이것은 여성의 개인적인 관심사보다 우선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여성은 출산 및 자녀양육 그리고 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 규정되고 이에 반해 여성의 가사노동이 사회적으로 과소평가 되며 동시에 생산영역에 참가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과 지위는 크게 제한 받고 있다(MacIntosh, 1981). 따라서 여성은 가정내에서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자녀출산과 양육 및 가사노동의 주요임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회적인 질서가 성립된다(Yeandle, 1984).

결국 여성은 가정생산을 방해하는 어떤 임금노동도 계속할 수 없다고 느끼게되며 여성이 있어야 할 곳은 가정이라고 믿게된다(문숙재, 1988). 따라서 기혼여성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생활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사실상 노동시장에의 참여 이전에 이미 여

성은, 가족의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운 남성과 동등한 노동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水田珠枝, 1979 ; McDonough, R. & R. Harrison, 1978)

그러나 현대산업 사회에서는 많은 기혼여성들이 임금노동에 참여하게 되어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이 가정 외부로 이전되고, 따라서 가정생산과 여성의 여가시간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으며 기혼여성이 임금노동에 종사하게되면서 가정생활활동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주부들은 과도한 노동부담을 덜기 위해 다른 가족원이 가사노동을 분담하거나 더 많은 재화를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또는 임금노동자의 서어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바로 '이 서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자기 가정의 가사노동과 고용된 가정의 가사노동을 겸하게 되는 이중적 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고용된 가정의 가사노동은 더 이상 가사노동이 아니다. 즉 이것은 비공식부문 취업여성에게는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일이 되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비공식부문 종사자 파출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1991년 1월 28일부터 5일간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1991년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연구자가 파출부 알선기관인 어머니회 지정장소에 가서 일과시간에 파출부들을 만나거나 파출일을 마치고 특정시간을 내준 파출부들과 한 사람당 40분 내지 1시간정도 소요되는 직접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224부를 회수하여 이중 202부를 분석처리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표준편차, 변량분석, X^2 검정, F검정, Duncan의 사후검정,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설문지는 선행연구 중에서 유가호의 3인(1991)의 생산적 기혼여성의 가족생활과 취업실태 연구, 김은미(1987)의 여성의 취업에 대한 가치관 연구, 박정문(1987)의 도시 비공식부문 파출부에 관한 연구 등의 문항들을 참고로 하여 재작성하였다. 가족의 일반사항 20문항, 가정관리 36문항, 부모·자녀관계 20문항, 부부관계 53문항, 파출일에 대한 사항 43문항, 취업의식 7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중 남편의 가족역할참여의 9개문항과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7문항은 3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 및 단일문항으로 직접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제한된 시간 내에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까닭에 자격지심이 있는 응답자들과의 래포우 형성이 부족하였다. 경제상황이나 고충을 밝혀내는 문항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그리하여 통계적 분석의 해석보다는 전반적 실태 파악에 주안점을 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질적 분석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Ⅳ. 연구결과 분석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부인연령 분포는 30대가 34.8%로 가장 많고 40대가 33.3%, 50대가 26.9% 순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부인의 학력은 국졸이하가 38.8%로 가장 높았다. 가족 유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비율이 78.6%로 가장 높았고 핵가족 형태가 94.0%로 높게 나타났다. 남편직업은 36.7%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수가 가장 높았다. 부인의 성장지는 농촌이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

2. 결과분석 및 고찰

(1) 주거실태 및 경제실태

조사대상자의 주택소유형태는 자가 30.0%이고 무주택이 69.7%로 나타났다(표 2). 동거가구수는 평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202)		
변 인	구 분	N (%)	변 인	구 분	N (%)
부인연령	29세 이하	2(1.0)	가족주기	신혼기	2(1.0)
	30~39세	70(34.8)		유아기	8(4.0)
	40~49세	67(33.3)		학동기	65(32.3)
	50세 이상	62(30.9)		청년기	77(38.3)
남편연령	29세 이하	1(0.6)		진수기	43(21.4)
	30~39세	37(21.9)		중년기	4(2.0)
	40~49세	74(43.8)		노년기	2(1.0)
	50세 이상	57(33.7)		남편직업	무직
부인 교육정도	국졸이하	78(38.8)	단순생산직		27(16.0)
	중졸	71(35.3)	자영업		21(12.4)
	고졸	51(25.4)	사무직		62(36.7)
	대졸	1(0.5)	기술직		9(17.2)
남편 교육정도	국졸이하	23(13.6)	기타		7(4.1)
	중졸	43(25.4)	남편 출생순위	장남	75(37.5)
	고졸	85(50.3)		외아들	18(9.0)
	대졸	18(10.7)		차남이하	107(53.5)
가족유형	부부 2인	4(2.0)	부인 성장지	농촌	155(76.7)
	부부와 자녀	158(78.6)		대구	36(17.8)
	모와 자녀	27(13.4)	다른도시	11(5.5)	
	시부모+부부 +자녀	7(3.5)			
	시부모+시동생 +시누이+부부 +자녀	1(0.5)			
	기타	4(2.0)			

균 2.9가구로 나타났으며 5년동안 평균이사횟수는 2.5회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가족월수입은 61~90만원이 34.9%로 가장 많았고 월수입평균은 76만원으로써 도시근로자 가구¹⁾의 가구당 소득 102만원²⁾보다 낮았다.

응답자 본인의 월평균수입은 22만 9천원으로써 30만원이하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유

가효외 3인(1991)의 생산직 기혼여성의 수입(30.7만원)보다 낮았다. 여성노동의 저임금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남편월수입은 51~80만원 급간이 37.2%로 가장 높았는데 남편월수입 평균은 63만원으로 한국인 도시근로자의 평균월수입 74만원³⁾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다른 가족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 조사해

1) 도시근로자 가구란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를 가리키며 근로자는 봉급생활자 및 일반노무자를 합쳐서 일천하거나 봉급생활자중 공무원의 경우 장차관, 청장 및 도지사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 일반회사의 이사 이상을 뺀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어 통상적인 근로자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2)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소득 1,027, 256원 한국통계월보 1990. 4/4

3) 도시근로자 월평균수입 744,510원 1990. 4/4

〈표 2〉 주거실태 및 주거이동

변 인	구 분	N (%)	변 인	구 분	N (%)
주택소유 형 태	자 가	61(30.3)	이 사 회 수	1 회	44(29.8)
	전세(도지)	96(47.8)		2 회	38(25.9)
	월세(부중부월세)	41(20.4)		3 회	40(27.2)
	기 타	3(1.5)		4 회	9 (6.1)
		201(100.0)		5 회	11 (7.5)
동 거 가 구 수	1 가 구	29(14.9)		6 회	1 (0.7)
	2 가 구	52(26.8)		8 회	2 (1.4)
	3 가 구	57(29.4)		9 회	2 (1.4)
	4 가 구	30(15.5)			
	5 가 구	16 (8.3)			
	6 가 구	8 (4.1)			
	7 가 구	2 (1.0)			
		194(100.0)			
					147(100.0)

〈표 3〉 가족의 수입현황

변 인	구 분	N (%)	변 인	구 분	N (%)
남 편 월수입	20만원 이하	5(3.4)	부 인 월수입	10만원 이하	23(11.9)
	21~50 만원	55(37.2)		11~20 만원	81(41.8)
	51~80 만원	55(37.2)		21~30 만원	64(32.9)
	81~129 만원	18(12.1)		31~40 만원	20(10.3)
	130 만원 이상	15(10.1)		41~60 만원	5(2.6)
		148(100.0)		61 만원 이상	1(0.5)
가 족 월수입	30 만원 이하	31(16.4)	현 재 어려운 점	경제문제	77(38.3)
	31~60 만원	44(23.3)		내집문제	69(34.3)
	61~90 만원	66(34.9)		자녀문제	16 (8.0)
	91~129 만원	29(15.3)		부부문제	9 (4.5)
	130 만원 이상	19(10.1)		건강문제	29(14.4)
	189(100.0)	기 타	1 (0.5)		
다 른 가족원 수 입	자 녀	28(14.8)			201(100.0)
	기 타	2(1.1)			
	없 음	159(84.1)			
		189(100.0)			

본 결과 15.9%가 다른 가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

결국 저소득층 가족일수록 복수의 노동력에 의해 노동력 재생산비를 충당하게 되는 노동력 가치분할 현상을 나타내게 되고(장하진,1990) 서기에 따라서 생계유지를 위한 가족성원들의 소득활동은 필수적이며 부인들의 소득활동 또한 절실히 요구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경제문제가 38.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내집문제가 34.3%, 건강문제가 14.4%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문제의 어려움을 반영해 주는 것은 남편이 무직인 경우가 13.6% 남편이 없는 경우가 17.0%라는 사실이다. 이것을 볼 때 이들 주부들은 실질적인 가장 역할로 인하여 취업을 통한 경제적 확보는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표 3).

(2) 가사노동 시간실태 및 남편의 역할 분담

파출일 종사자들의 가사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업으로 인해 집안일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반수가깝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남편에게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는 97.6%가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응답했다. 이것은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우리사회에서의 고정적인 성역할 구분태도와 맞물린 여성들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 하겠다. 즉 바깥일과 가사노동에 대한 이직 부담을 여성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표 4).

이어서 부족한 수준이나마 실제로 남편이 어떤 일에 얼마나 관여하는가를 요인분석하여 eigen 값이 1.0 이상이고 요인부하량이 .5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표5). 그 결과 가사노동, 경제관리, 자녀교육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졌고 이를 영역별로 변량분석한 결과 남편연령, 남편학력, 가족월수입에 따라서 남편의 참여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남편연령별로는 40~49세 집단이 전체적인 가족역할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족주기에 따른 가정의 안정기로서 남편이 가장 가정에 관심이 많은 시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은 집단이 가족역할 참여도가 높았으며, 남편직업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제적 수입별로는 수입이 높은 집단에서 남편 역할 참여도가 높았다(표 6). 이러한 역할참여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사노동 역시 40대 연령층과 대졸집단,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집단이 높게 참여하였다. 한편 자녀연령과 관련되는 자녀교육영역에는 50대이상의 참여가 현저히 낮았으며 고학력집단과 고소득집단 그리고 자영업, 기술직에 종사하는 남편이 상대적으로 높게 참여하였다. 그리고 경제관리영역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간의 대화는 비교적 잘 된다는 응답이

〈표 4〉 집안일을 하는 시간 및 남편에게 바라는 역할

변 인	구 분	N (%)
집안 일 하는시간	충 분 하 다	36 (18.4)
	보 통 이 다	68 (34.7)
	부 족 하 다	77 (39.3)
	매 우 부 족 하 다	15 (7.6)
		196(100.0)
남편기대 역 할	더 바랄 것이 없다	164(97.6)
	빨 래	1(0.6)
	학 습 지 도	3(1.8)
		168(100.0)

〈표 5〉 남편의 가족역할 참여에 대한 요인분석

영역		요인전1	요인 2	요인 3
빨	래	0.76870	-0.29575	-0.02784
설	거 지	0.74664	-0.25807	0.32942
식	사 준 비	0.57867	-0.14632	0.56936
청	소	0.77371	-0.15407	-0.13286
이	부 자 리 정 리	0.73246	-0.19271	-0.16762
생	활 비 관 리	0.11635	0.76655	0.28453
은	행 일 보 기	0.27967	0.76029	0.30794
학	습 지 도	0.52998	0.54844	-0.53367
*	아 이 들 돌 보 기	0.52934	0.32601	-0.31169
Eigen 값		3.271194	1.809063	1.036949

* 요인적재치가 낮아 제외된 문항

〈표 6〉 변인별 남편의 가족역할 참여 영역

요인		Ⅰ 가사노동				Ⅱ 경제관리				Ⅲ 자녀교육				남녀역할 참여도			
		N	평균	검 증	F값	N	평균	검 증	F값	N	평균	검 증	F값	N	평균	검 증	F값
남 편 연 령	29~	40	1.25	A		37	139	A		37	173	A		40	135	B	
	39~																
	40~	70	1.43	A		63	152	A		67	173	A		72	150	A	
	49~				2.71*				0.63				6.42***				
	50~	52	1.28	A		51	152	A		40	130	A		53	136	AB	
	67~																
남 편 학 력	국졸	22	1.13	B		21	136	A		15	120	B		22	119	B	
	이하																
	중졸	39	1.40	A		38	136	A		37	168	A		40	143	A	
	고졸	82	1.36	AB	2.15*	74	160	A	1.91	76	166	A	2.17*	84	147	A	3.32**
	대졸	17	1.41	A		16	147	A		14	164	A		17	146	A	
남 편 직 업	무직	20	1.32	A		18	142	B		13	139	B		20	134	B	
	단순																
	생산직	25	1.24	A		25	144	B		23	157	B		27	138	AB	
	자영업	21	1.44	A	0.51	18	147	B	1.32	18	172	B	2.28*	21	146	AB	0.80
	기술직	27	1.33	A		26	137	B		26	173	B		27	140	AB	
	사무직	60	1.36	A		56	155	B		56	152	B		61	144	AB	
	기타	7	1.40	A		6	200	A		1	233	A		7	164	A	
남 편 월 수 입	29만원	33	1.26	A		30	137	A		24	146	B		33	130	B	
	이하																
	30~	55	1.23	A	2.25*	54	157	A	0.84	48	150	B	2.38*	56	138	AB	2.64*
	59만원																
	60~	56	1.44	A		52	146	A		56	168	A		57	149	AB	
	99만원																
	100만																
	원이상	18	1.41	A		15	150	A		16	194	A		19	154	A	

〈표 6〉 변인별 남편의 가족역할 참여영역 계속

변인	요인	Ⅰ 가사노동				Ⅱ 경제관리				Ⅲ 자녀교육				남녀역할 참여도			
		N	평균	검 증	F값	N	평균	검 증	F값	N	평균	검 증	F값	N	평균	검 증	F값
부인 월수입	29만원 이하	122	1.32	A		113	153	A		106	154	A		124	140	A	
	30~ 59만원	38	1.40	A	0.52	36	133	A	2.26	36	178	A B	3.64*	39	147	A	0.98
	60~ 99만원	2	1.40	A		2	200	A		2	250	B		2	169	A	
가족 월수입	29만원 이하	17	1.17	A		14	143	A		10	120	A B		17	123	B	
	30~ 59만원	28	1.23	A	2.06	26	156	A	0.48	20	140	A	2.62*	28	132	AB	3.02**
	60~ 99만원	79	1.40	A		77	151	A		78	165	A		81	148	A	
	100만 원이상	38	1.37	A		34	140	A		36	175	A		39	146	A	

(* P<.1 ** P<.05 *** P<.001)

〈표 7〉 부모와 청년기 자녀의 대화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부와의 대화	잘 된다	81(57.0)	모와의 대화	잘 된다	118(72.4)
	안 된다	61(43.0)		안 된다	45(27.6)
		142(100.0)			163(100.0)
부와의 대화 단절 이유	대화할 시간이 없다	19(31.1)	모와의 대화 단절 이유	대화할 시간이 없다	17(39.5)
	부가 너무 엄격하다	22(36.1)		모가 너무 엄격하다	3(7.0)
	세대차로 대화가 안통한다	7(11.5)		세대차로 대화가 안통한다	3(7.0)
	부의 얘기를 안들으려 한다	3(4.9)		모의 이야기를 안들으려 한다	7(16.3)
	자녀가 이야기를 잘 안한다	9(14.8)		자녀가 이야기를 잘 안 한다	12(27.9)
	기타	1(1.6)		기타	1(2.3)
		61(100.0)			43(100.0)
	부와 의견 충돌시	부모에게 따르게 한다		61(43.3)	모와 의견 충돌시
서로 의논하고 합의 한다		64(45.4)	서로 의논하고 합의 한다	80(48.8)	
자녀의 의견대로 따른다		16(11.3)	자녀의 의견대로 따른다	41(25.0)	
		141(100.0)		164(100.0)	

〈표 8〉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 정도

구분 N(%)	대학원	대 학	고등학교	경제형편대로	본인의능력대로	합 계
	N(%)	N(%)	N(%)	N(%)	N(%)	N(%)
아 들	34(19.6)	66(38.2)	11(6.3)	10(5.8)	52(30.1)	173(100)
딸	9(6.9)	42(32.1)	19(14.5)	13(9.9)	48(36.6)	131(100)

부의 경우 57.0%이고 모의 경우는 72.4%이다. 모가 부보다 자녀와 대화가 더 잘 되는것은 모가 부에 비해 허용적 양육태도를 갖고 있는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일반적 현상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유가효외 3인, 1992).

부모-자녀간의 대화단절 이유에서 부의 경우는 '부가 엄격해서'가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의 경우는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가 39.5%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취업여성은 취업에 따른 제약조건과 가사노동을 통한 이중역할의 과중함은 물론 자녀 양육의 부담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7).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희망 정도는 대부분이 '많이 가르쳐야 한다' '능력만 있으면 한다는 데까지 가르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표 8). 현재 부모의 힘든 삶을 적어도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교육을 통한 자녀의 계층 상승기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고생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의 교육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부부 모두 직장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에서 자녀의 교육에 대한 최대의 지원이 실제로 이뤄진다는 것은 실제로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좌절의 원천 즉 부담이 된다는 선행연구(조옥라, 1990)를 볼 때 이들의 기대와 현실간의 격차가 우려된다고 하겠다.

(4) 부부간의 갈등 및 해소

부부갈등의 요인으로는 돈문제가 70.6%, 성격차 67.9%로 대부분이 남편의 경제적 능력과 개인적 문제에 관련된 것이다(표 9). 이러한 가족문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대응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갈등을 노출시켜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것은 주로 남편의 개인적인 생활의 문제적이고 부부 상호간에 관련되는 문제이거나 가족구성원들에 관계된 문제에는 비교적 너그럽다.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 비협조에 대해서는 체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바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낮은 귀가, 직장불안정, 돈문제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데에 그 원인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 노출을 꺼려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직 기혼여성의 경우(유가효외 3인, 1992)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부부갈등시 해소하는 방식은 항상 내가 참는다가 가장 높았고 갈등시 의논대상이 없다가 39.0%나 나타났는데 이는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도시의 속성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수치이다.(표 10).

(5) 일의 실태 및 취업에 대한 태도

파출일을 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연령과 학력별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즉 연령이 낮은 집단은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천현숙(1987)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아질수록 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여성의 의식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취업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경향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결과와 유사했다. 반면 연령이 높은 집단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취업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학력이 높은 집단은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해야한다'는 동기로 취업했고 학력이 낮은 집단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취업했다고 나타났다. 취업연령분포가 모든 연령대에 비슷한 것은 이 직종이 연령에

〈표 9〉 부부갈등요인과 갈등표출정도

갈등요인	갈등빈도수(%)	참는다	약간다툼	많이나름
남편의 늦은귀가	92(56.4)	44(47.8)	42(45.7)	6(6.5)
남편의 외도	24(14.7)	10(40.0)	11(44.0)	4(16.0)
남편의 도박	27(16.7)	7(26.9)	10(38.5)	9(34.6)
남편의 권위적 태도	74(46.0)	25(34.2)	44(60.3)	4(5.5)
남편의 술버릇	60(36.8)	19(32.8)	26(44.8)	13(22.4)
남편의 의욕상실	51(31.9)	21(41.2)	27(52.9)	3(5.9)
남편의 직장불안정	70(43.5)	28(42.4)	31(47.0)	7(10.6)
남편의 성격차	110(67.9)	31(29.8)	58(55.8)	15(14.4)
자녀문제	48(30.2)	15(31.9)	29(61.7)	3(6.4)
돈문제(생활비 부족)	115(70.6)	45(40.2)	55(49.1)	12(10.7)
시댁문제, 고부갈등	42(35.3)	12(28.6)	18(42.8)	12(28.6)
남편이 집안일 협조않음	79(49.1)	54(68.4)	23(29.1)	2(2.5)

〈표 10〉 갈등해소 방식 및 갈등시 의논대상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갈등 해소 방식	그럴때마다 다룬다	21(12.7)	의논 대상	친 구	43(26.2)
	풀릴때까지 말 안한다	25(14.9)		친 척	36(22.0)
	항상 내가 참는다	60(35.9)		이 웃	15(9.1)
	술적하게 얘기해서 푼다	49(29.3)		직장동료	6(3.7)
	갈등이 없다	12(7.2)		없 다	64(39.0)

다른 특별한 자원이나 기술없이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표 11).

취업경로는 53.5%가 친구, 친지를 통해서 취업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조형(1985)의 비공식부분 여성의 취업경로와 유가효외 3인(1991)의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경로도 대부분이 인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일치했다(표 12).

응답자들의 일일노동시간은 하루평균 8시간 일한다고 64.7%로 가장 높았다. 9시간 이상 일한다는 비율도 32.6%나 나타났는데 이런 경우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수당이 지급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소득원을 높이기 위해서 응답자 스스로가 8시간 이상 노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많이 나타났다. 또한 만나질 노동을 원하는 응답자도 많이 나타

났는데 이것은 시간이 필요할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 직종의 장점을 최대로 이용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소득의 만족과 본인의 가사노동을 적당히 배분하여 시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중 다수가 오히려 하루종일 노동보다 만나질 노동을 원했다(표 13).

과출일의 장점으로서는 '시간이 날때마다 할 수 있다'는 점을 반수이상 높게 들었고 '구하기 쉽다'도 41.3%로 응답했다. 어려운 점은 '일거리가 많아서 힘들다'라고 46.1%가 응답했는데 이는 가사노동의 연속으로서 신체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과반수 이상이 과출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이나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겪는 정신적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이 일에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은 72.1%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을 통한 자아실

〈표 11〉 변인별 취업동기

변인	구분 N(%)	생계비	자녀	남편	노후생활	사람은어떤	합계	X ² 값
		마련	교육비	실적	대책	일이든지 해야한다		
		N(%)	N(%)	N(%)	N(%)	N(%)	N(%)	
연령	28~	15	15	2	8	33	73	39.677***
	39세	(7.46)	(7.46)	(1.00)	(3.98)	(16.42)	(36.32)	
	40~	14	24	2	2	24	66	
	49세	(6.97)	(11.94)	(1.00)	(1.00)	(11.94)	(32.84)	
	50~	34	14	5	2	7	62	
	63세	(16.92)	(6.97)	(2.49)	(1.00)	(3.48)	(30.85)	
	합계	63	53	9	12	64	201	
		(31.34)	(26.37)	(4.48)	(5.97)	(31.84)	(100.0)	
학력	국졸	38	20	3	3	13	77	30.528***
	이하	(19.00)	(10.00)	(1.50)	(1.50)	(6.50)	(38.50)	
	중졸	12	25	4	3	27	71	
		(6.00)	(12.50)	(2.00)	(1.50)	(13.50)	(35.50)	
	고졸	13	8	2	6	23	52	
이상	(6.50)	(4.00)	(1.00)	(3.00)	(11.50)	(26.00)		
	합계	63	53	9	12	63	200	
		(31.50)	(26.50)	(4.50)	(6.00)	(31.50)	(100.0)	

(*** P<.001)

〈표 12〉 취업경로

(N=200)

구분	분	N(%)
모집	광고	80(40.0)
친구	친지	107(53.5)
T.V	라디오	8(4.0)
친	척	5(2.5)

〈표 13〉 일일 노동시간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하루	7시간이하	4(2.7)	반나절	6시간	오전 10시~오후 4시	4(3.6)
	8 시간	97(64.7)		오전 9시~오후 2시	6(5.4)	
일한	9 시간	37(24.7)	일한	5시간	오전 12시~오후 5시	2(1.8)
	10시간이상	12(7.9)		오전 9시~오후 1시	87(78.4)	
시간			시간	4시간	오후 1시~오후 5시	2(1.8)
				오후 2시~오후 6시	10(9.0)	

〈표14〉 일의 장단점 및 일에 대한 태도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이일의 좋은점	구하기 쉽다	81(41.3)	다른이에게 권유여부	예	102(61.8)
	시간이 날때마다 할 수 있어서좋다	108(55.1)		아니오	63(38.2)
	수입이 많다	7(3.6)			165(100.0)
		196(100.0)	경제적여유 가 생긴다면 현재 일은?	그만두고 집에있겠다	52(26.1)
이일의 어려운점	일거리가 많아시 육체적으로 힘들다	89(46.1)		이일은 그만두지만 무슨일인가 하겠다	88(44.2)
	요구가 까다로와 심리적으로 힘들다	43(22.3)	지금하고있는 일을 계속하겠다	59(29.7)	
	인간적으로 대해주지 않아서 힘들다	41(21.2)		199(100.0)	
	남의 눈이 부끄럽다	20(10.4)	일을 맡은후 건강강함	있 다	82(41.2)
		193(100.0)		없 다	117(58.8)
일의힘든 정도	힘에 많이벌차다	53(26.7)	(한달동안)	1~5회	64(82.1)
	보통이다	38(19.1)		6~9회	3(3.8)
	약간 피로하다	99(49.7)		10~15회	8(10.3)
	알맞다	9(4.5)		16~20회	1(1.3)
		199(100.0)		21회이상	2(2.5)
현재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	보람을 느낀다	132(72.1)			78(100.0)
	못마땅하지만 어쩔수없이 한다	40(21.9)	결근이유	본인의 건강	25(30.5)
	아무생각없이 그냥한다	4(2.2)		자녀의 교육	6(7.3)
	부끄럽게 생각 하고있다	7(3.8)		이나 질병	5(6.1)
		183(100.0)		자녀이외의 가족, 친척의 질병	28(34.2)
모의 일에 대한 자녀의 태도	땀땀이 생각한다	51(30.8)		친척의 결혼, 제사,장례	11(13.4)
	모르고 있다	39(23.1)	일이하기 싫어서	7(8.5)	
	관심이 없다	25(14.8)	기 타	7(8.5)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39(23.1)		82(100.0)	
	부끄럽게 생각 한다	14(8.2)			
	169(100.0)				

현의 보람이 아니고 이 일에 대한 경제적 댓가에 대한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경제적 댓가로 인한 만족때문에 다른 이에게 권유하고 싶다는 응답자

가 61.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파출일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69.2%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경제적 여유

〈표 15〉 이직희망 및 일의 갈등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이직희망	있다	128(64.3)	일할때 불쾌한점	일을무리하게 시킬때	84(44.0)
	없다	71(35.7)		간섭,명령이 심할때	37(19.4)
				급품도난으로 경계할때	34(17.8)
				사용자의 무례한 태도	36(18.8)
		199(100.0)			191(100.0)
이직희망이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65(51.6)	속상한일 의논의 대상	가족들	32(16.2)
	인간적으로 대접을 못받아서	18(14.3)		같은일하는 동료	69(34.8)
	남편 또는 자녀들이 싫어해서	16(12.7)		일을 주선해준 사람	14(7.0)
	가정적으로 분위기가 좋지않다	5(3.9)		혼자 참는다	83(42.0)
	기타	22(17.5)			
		126(100.0)			198(100.0)
이직희망직업	장사	71(59.2)	사용자와 다툼경험	여러번있다	5(2.5)
	공장일	12(10.0)		한두번있다	15(7.4)
	부업	25(20.8)		없다	182(90.1)
	기타	12(10.0)			
		120(100.0)			202(100.0)

가 생기면 70.3%가 그만 두겠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출일을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을 잘 반영해준다.

그리고 일을 맡은후 결근 경험이 41.2%였고 결근 이유로는 '친척의 관혼상제 때문에'가 34.2%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공식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비하여 응답자들의 경우 직업에 대한 인식이 소홀하다는 것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또한 30.5%가 본인의 건강으로 인해서 결근한다고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표 14).

응답자들의 64.3%가 이직을 희망하였으며 이직희

망 이유로는 '육체적으로 힘들다'가 반수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직 희망에 따른 직업은 힘은 들더라도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자영업일을 하고 싶다가 80% 이상 응답했다. 파출시 불쾌한 점은 '일을 모아 두었다가 무리하게 시킬때'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이 일이 가사노동의 중복으로 인하여 육체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할때 속상한 일들을 누구와 의논하는가 물은 결과 혼자 참는다가 42.0%로 가장 높았고 일을 주선해 준 사람에게 의논하는 비율은 7.0%로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일의 고충을 얘기하는 것이 다음 취업알선에서 자신에게 피해를 줄까봐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파출시 사용자와의 다툼 경험에 대한 응답은 90.1%가 '다툼 경험이 없

다'라고 응답했다. 이것은 일에 대해서 불만이 없거나 사용자와의 관계가 원만해서가 아니라 이 일은 언제라도 쉽게 다른곳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취업의 용이함 때문에 사용자와의 충돌을 가급적 피한다고 응답했다(표 15).

(6)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응답자들은 여성취업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묻은 결과 여성의 취업활동,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은 물론 여성취업으로 인한 남편의 가족내 역할분담 요구에 있어서도 그들의 실제생활에서 나타낸 행동과는 달리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표 16).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월급을 더받아야 하고, 일의 능력이 남성이 더 월등하다고 인식하였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여성은 직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남성우선주의와 가정우선주의의 모순된 태도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제적 가치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를 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학력이나 출신지역, 결혼형태 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부인의 연령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7). 역시 젊은 연령층에서 여성취업에 대하여 적극적이었다. 즉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은 가장의 부양을 받도록 인식되어 있는 까닭에 실제로는 부양해줄 가장이 없는 경우라도 여성은 자신의 노동력 재생산에 소요되는 전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는 사회적으로 기대되지 않고 단순히 가계 보조적인 것으로 인정해 왔다. 결국 이것은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되었나해도 실제로는 전통적인 여성 역할관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의 역할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자신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다역할수행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직장가정생활 양립의 이중고를 가정구성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조혜정, 1985).

〈표 16〉 여성의 일참여 및 성역할에 대한 태도

변인	구분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않다	합 계
	N(%)	N(%)	N(%)	N(%)	N(%)
여성이 직장이 있으면 남편도 집안일을 해야한다		144(71.6)	16(8.0)	41(20.4)	201(100.0)
집안에 일나가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성은 직장을 포기해야한다		123(61.5)	18(8.0)	59(29.5)	200(100.0)
남자는 여자보다 월급을 더 받아야한다		137(67.8)	16(7.9)	49(24.3)	202(100.0)
기혼여성이 직장을 다니는 것은 남자체면을 깎는 일이다		27(14.6)	16(8.6)	142(76.8)	185(100.0)
일의능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하다		101(50.2)	19(9.5)	81(40.3)	201(100.0)
여성도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다		169(90.9)	11(5.9)	6(3.2)	186(100.0)
여성은 경제적인여건이 허락하면 일을 안하는것이 좋다		87(47.0)	5(2.7)	93(50.3)	185(100.0)

〈표 17〉 여성의 일참여에 대한 태도의 일원변량분석

변 인	구 분	N	평 균	Duncan	F 값
부인연령	28-39세	73	2.2042	A	7.34***
	40-49세	67	2.1663	A	
	50-63세	62	1.8921	B	
부인학력	국졸이하	78	2.066	A	0.44
	중 졸	71	2.157	A	
	고 졸	51	2.078	A	
	대졸이상	1	2.000	A	
남편직업	무 직	23	1.949	B	1.51*
	단순·생산직	27	1.987	AB	
	자 영 업	21	2.162	AB	
	기 술 직	29	2.250	AB	
	사 무 직	62	2.122	AB	
	기 타	7	2.347	A	
결혼형태	중 매	134	2.097	A	0.80
	절 충	26	2.195	A	
	연 애	42	2.030	A	
부 인 결혼연령	19세이하	20	1.840	A	2.99**
	20-25세	136	2.165	A	
	26-29세	42	2.005	A	
	30세이상	4	1.976	A	
부인고향	농 촌	155	2.120	A	0.74
	대 구	36	2.021	A	
	다른도시	11	1.998	A	

(*** P<.001, * P<.01, * P<.05)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비공식부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기혼여성 20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면담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가족생활실태와 노동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들 가정의 주거 및 가정경제 실태와 남편의 가족역할 분담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와 부부간의 갈등 및 해소를 살펴보았다. 또한 생계활동으로서 다른 가족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의 취업실태와 일에 대한 태도를 고찰하여 가족연구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현실에 부응하는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바 파출부 직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의 무

려 70%가 무주택이었고 한집에 동거하는 가구수는 평균 네 가구이며 이사빈도 역시 두 해에 한번꼴로 높았다. 이들 가족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치에 못 미치는 76만원이며 부인의 소득은 이중 3분의 1정도 차지하였다. 한편 여성가구주인 경우가 16.8%이며, 남편이 무직인 경우도 13.6%나 되는 것을 볼 때 가계보조적이 아닌, 실질적인 생계담당자 역할을 하는 비율이 30%를 상회하였다. 응답자 이외의 다른 가족원의 경제활동 참여는 15%로서, 여리가구원의 취업을 통하여 노동가치가 분할되는 저소득층의 생활양상을 이들에게서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운 문제는 주거문제(34.3%)를 포함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70%를 상회하였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집안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하면 서도 남편의 협조를 바라지는 않는 점이 중산층의 취업여성과 대조적이다. 남편의 가사분담은 40대 연령층과 학력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층에서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또한 아버지가 엄격해서 자녀와 대화를 못나누는 것과 달리, 어머니는 시간이 부족해서 자녀와의 관계에 단절을 느끼고 있다. 결국 이들 저소득층 취업여성은 역할이 과중한데, 응답자의 자녀교육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담은 장기적이라고 파악된다.

그리고 비공식부문 취업여성들의 부부간의 갈등은 크게 생활비부족, 직장불안정 등의 경제적 문제와 남편의 개인적 결함으로 대별되었다. 그런데 부인들은 남편의 개인적 비행에 대하여는 부부싸움으로 갈등을 노출시키는 반면에 경제적문제와 같이 사회구조와 관련된 가족문제에는 일종의 개념의 형태로 여성이 참는 경향이였다. 그리하여 갈등 시 말을 안하거나 혼자 참는 경우가 과반수였고 의논 대상조차 없는 경우 역시 높은 비율이였다.

한편 취업동기는 연령과 학력에 따라 대조적이였다. 연령이 높은 집단과 학력이 낮은 집단인 경우엔 경제적 이유가 우선인데 반해,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해야한다'고 일하는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모의 파출부 일 종사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으니 우리사회 통념의 반영이라고 보인다. 한편 이들의 높은 결혼율은 공식부문 취업여성에 비해 이들의 직업의식이 소홀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준다. 이는 응답자들이 사회적인 직업지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로서 시간 이용이 자유롭다는 것을 드는 것과 맞물려있다.

요컨대 이들 조사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가정 경제의 보조역할이라기보다는 생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의 가장 큰 동기가 경제적 이유였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에 의해 파출일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으며, 그리하여 파출부들이 경제적 댓가는 만족하면서도 이직을 희망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파출부들이 이중역할의 갈등상황에 놓여있었으며, 이것은 여성 스스로 내면화된 가부장

적 관념의 소산이기도 한데 젊은 연령층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의존하고 있는 파출알선 단체의 현실은 대다수가 민간인 주도하에 운영되어 국가의 감독이나 지도의 영역밖이었다. 그리하여 주선자의 사적 감정이 개입되어서 파출부와의 불공정한 거래가 오고갔고 심지어 주선자의 횡포가 있었으며 일을 얻기 위한 파출부간의 경쟁이 부추겨질 정도로 은폐된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었다. 결국 경제적 이유로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하는 이들이, 법적보호나 복지수준의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지 못한 비공식부문직종에서 가정 안팎으로 이중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이들 응답자들의 현실이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중산층위주의 정책을 지양하여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 장기 임대주택이나 소형아파트 위주의 현실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은 각종 가족문제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가족 내의 물질적, 심리적자원이 부족한 까닭에 이들을 위한 사회 국가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더구나 이들은 비공식 차원에서 고립된 취업생활을 하고 있는 까닭에 비공식 부문 취업여성을 조직화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차원에서 가족을 지원해 주는 각종 상담전화와 가족복지시설을 마련하여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본, 학력, 기술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여성들이 어떤 직종에서도 떳떳한 직업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의식의 전환이 있어야겠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피하는 세대의 극복과 함께 일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바로 잡는 기풍을 조성하여 파출일에 종사하는 이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파출일을 알선하는 민간주선 단체의 비행을 바로 잡기 위해, 파출일의 종사자와 사용자를 연결 짓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이 요망된다. 즉 복지적인 차원에서 파출일을 알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알선기구를 공적기

구로 정비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취업희망자와 사용자를 원활하게 연결시켜 비공식부문 취업여성의 신분을 보장해 주고 동시에 직업의식을 제고시키는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김은미, 여성의 취업에 대한 가치관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87.
- 2) 문숙재, 가정생산, 신광출판사, 1988.
- 3) ———, 가사노동의 사회학, 신광출판사, 1990.
- 4) 박미금, 도시저임금 취업주부의 가정관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권1호, 1985.
- 5) 박정분, 한국도시 비공식부문 파출부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 6) 손덕수, 가사노동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여성과 일, 이화여대 한국여성 연구소편, 이대출판부 1985.
- 7) 유가효외 3인,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 실태 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제29권 3호, 1991.
- 8) ———,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II),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1호, 1992.
- 9) 이미영, 기혼여성노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 인천 송림 6동 기혼여성의 노동주기를 중심으로 -,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 10) 이성희,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간 가족역할 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권 2호, 1989.
- 11) 이호금, 여성의 취업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여성연구소, 여성연구논총 3집, 1987. 3.
- 12) 이재열, 한국사회연구 5, 도시비공식부문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길사, 1987.
- 13) 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 : 경문사, 1983.
- 14) ———, 한국여성 노동주기(Work Cycle)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논총」49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86.
- 15) 장하진, 노동자 가족의 노동력 재생산 - 가족임금제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론,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까치, 1990.
- 16) 조옥라, 도시빈민가족과 농촌영세빈농 가족의 비교, 한국가족론, 까치, 1990.
- 17) 조 은, 한국의 산업화와 여성인력의 활용, 여성연구 제2권 제1호, 1984.
- 18) 조 형, 한국의 도시비공식부문 근로자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논총」41집, 1982.
- 19) ———, 비공식부문 여성노동, 한국여성과 일,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편 이화여대 출판부, 1985a.
- 20) ———, 한국의 도시비공식부문과 빈곤, 한국사회의 재인식(1), 한울총서 32, 1985b.
- 21) 천현숙, 공단지역 기혼여성노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7.
- 22) 한국산업사회연구원, 새로운 사회학 강의, 대학총서, 미래사, 1990.
- 23) 홍승아, 여성노동의 사회적존재 형태 및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생산직 기혼여성 노동자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 24) 水田珠枝, 여성해방 사상의 흐름, 김희은(역), 1983, 서울 : 백산서당, 1979.
- 25) MacIntosh, M. 성과 경제 : 성별분업과 여성의 예측, 여성평우회편, 서울 : 창비사, 1985.
- 26) Beechey, V. "Some Notes on Female Wage Labour in Capitalist Production", Capital and Class, vol, 1, No.3, 1977.
- 27) Beechey, V. "Women and production : A. Critical Analysis of Some Sociological Theories of Women's Work", Feminism and Materialism, London : PKP, 1978.
- 28) Bromley, R. "The Urban Informal Sector : Why Is It Worth Discussing?" World Development, Vol.6, 1987.
- 29) Keith, H. Informal Income Opportunities and Urban Employment in Ghana,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1, No. 1, 1973.
- 30) Mazumdar, D. 'The Urban Informal Sector', World Development, Vol. 4, No. 8, 1976.

-
- 31) McDonough, R. & Harrison, R. "Patriarchy and Relation of Production " Feminism and Materialism, ed. Kuhn, A. & Wolpe, A. M. London : PKP, 1978.
- 32) Nye, F. I. & Rallings, E. M. Wife-mother Employment, Family and Society, Ed. Burr, W. R. et al.,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1979.
- 33) Reid, M. Economics of Household Production,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1934.
- 34) Yeandle, S. Women's Working Lives : Patterns and Strategies, London : Tavistock pub. Hartmann, H.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 Towards a More Progressive Union, Women and Revolution, ed. Sargent, L. Boston : South End Press, 1981.